

# 농촌마을 개발계획을 위한 어메니티특성에 관한연구

-충북 영동군 시항골권역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menities for rural village development plan

- A subject of Chungbuk Yeongdong-gun sihanggol area -

주재철\*, 정다영\*\*, 송이\*\*\*, 리신호\*\*\*\*

Ju, Jaecheol, Jung, Dayoung, Song, Yi, Rhee, Sinho

### Abstract

The Government's investment for rural issues and continues to increase in the rural village developed and emerging.

Among these development plans in the amenity characteristics analysis is an essential element of working.

In this study, Chungbuk Yeongdong sihanggol in sub-analysis of the resources and amenities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you want to animate a plan was developed. Analysis of city attractions as well as through seeking to gain a competitive edge and to reflect the resident physicians conducted a SWOT analysis.

Major strategic include utilizing the strengths sihanggol opportunities for the many ways to leverage the resources and sub-concepts derived from detailed planning to detailed business information presented.

키워드 : 농촌어메니티, 농촌계획, 자원조사항목, 어메니티 특성

Keywords : Rural Amenity, Rural Planning, Survey Table, Amenities Characteristic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어메니티와 전통생활, 농촌에 대한 관심증가로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농촌이 갖고 있는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일궈나가는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현실을 살펴보면 농업이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농업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불안정해져 농업인 인구의 감소라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농촌발전을 위한 주요전략 중의 하나인 농촌의 내생적인 자원에 근거한 농촌관광의 활성화가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과 결합한 지역축제 및 산업 등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농업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의 안정화로 농촌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가 종류의 다양성과 자연, 깨끗함, 풍요로움, 정(情)이라는 이미지로 연결되는 농촌을 경험하고 느끼고자하는 수요자의 증가로 인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은 농촌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관광의 주 수요층이 되는 도시민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개발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성 및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 시행 후 기존의 목표인 농촌관광을 통한 농업의 활성화 및 농가소득의 안정화 등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을 위하여 농촌마을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에 위치한 행정리(봉림리, 범화리, 도덕리)를 대상으로 농촌마을 자원 항목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5)에 따라 어메니티자원을 조사하고, 행정리별 어메니티 자원 현황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SWOT 분석을 실시한다. 세부계획을 위해 마을의 자원을 요인별

\* 정희원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 농학박사  
“이 논문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1년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사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짐”

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마을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고찰하여 농촌마을 개발계획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선행 연구로 리신호 등(2006)은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사례별 농촌마을 모형 설계를 위해 농촌지역 어메니티 분류체계를 적용해 마을별 유형분류를 하였다. 그 결과 정주기반 중심마을, 교통편의 중심마을, 1차 산업 중심마을, 복지 중심마을의 4가지의 유형을 결정하고 농촌의 발전유형으로 자연경관형, 전통보존형, 농촌소득형, 복합농촌형의 총 4가지 발전 유형을 제시하고 그 특성을 구분하였다.

또한 어메니티 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대부분의 결과가 자원을 상품적 가치로 판단하고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김진경 등(2004)은 기존 농촌마을계획과 차별되는 이유를 공간단위,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에 있어 농촌관광 및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점과 이를 통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자원중심의 계획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대상마을을 사례로 자원유형별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마을계획개발 방향을 도출하였다. 강방훈 등(2007)은 계획수립에 있어 필요인자를 자원의 분포와 밀도 등으로 보고 어메니티 계획권역 중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어메니티 자원의 질을 관리하고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체험과 상품화가 가능한 지역, 교통 편리성이 높은 어메니티 계획권역을 핵심지역이라 정의 하였다. 반응운 등(2008)은 농촌의 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므로 상품적 가치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창출을 위해 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체험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조상필 등(2004)은 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민 및 시민단체 등 각 주체별 역할과 협력방안, 단계별 추진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 정책적 전환과 자원관리, 사업의 통합관리·운영의 필요성 증대, 공공지원의 확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방정부 또한 어메니티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운영체계구축과 리더그룹양성을 주요 역할로 구분하였으며, 지역민들에게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의 상호 협력관계가 자원활용의 극대화 방안 중 하나임을 명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대상지의 어메니티 자원조사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며 조사된 자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 또한 대

상지의 어메니티 자원조사와 자원현황 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색하고 SWOT분석으로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발전 계획을 세우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민을 위한 기반시설 외에 농촌주민 생활의 편의를 돕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일궈내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 3. 지역현황분석



그림 1. 영동군 내 학산면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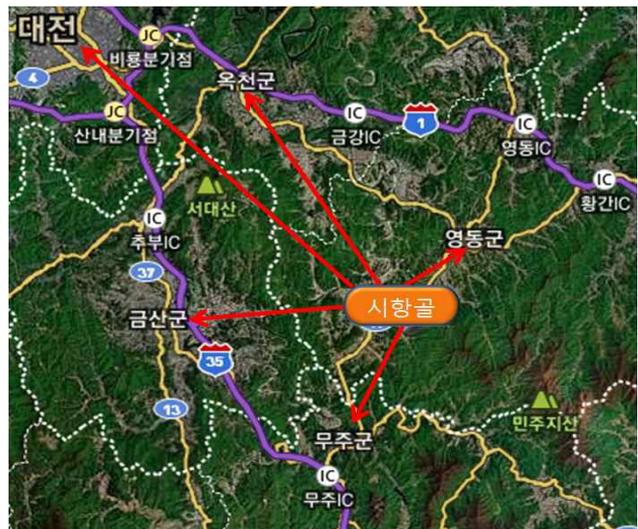


그림 2. 시항골 인접지역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 범화리, 도덕리 3개의 법정리로 이루어진다. 봉림리는 봉암리와 평촌리 두 개의 행정리로 나뉘어져있고, 범화리는 하시리와 상시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도덕리와 함께 총 5개의 행정리를 이루고 있다. 자연마을은 봉암리에 봉암과 미촌, 평촌리에 평촌과 수동, 하시리에 하시, 상시리에 상시, 도덕리에 도덕과 마섬이로 불려진다. 8개의 자연부락은 영동, 금산을 잇는 68번 국도에서 무주방향의 581번 지

방도를 중심에 두고 좌우로 형성되어 있다.

시항골권역은 충청북도 남부권에 위치하고 동으로는 경상북도 성주군, 서로는 충남의 금산군, 남으로는 전북의 무주군과 인접해 있으며, 지리적 위치상 우리나라 국토의 중앙부에 해당한다. 또한 대전과 57.5km, 무주 17.2km, 금산과 30km, 옥천과 42km, 영동군청과 15.5km의 거리를 두고 있어 주변 도시 및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아 유동인구를 유치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 3.1. 대상지역 자원 현황

시항골은 2008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도·농교류체험장과 원두막을 짓고, 마을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체험객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 하였고 지역자원인 포도와 복숭아, 장수풍뎅이를 활용하여 체험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시항골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시항골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의지를 반영하고 권역 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현 시점의 문제점을 해결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 (1)인문환경자원

먼저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가구 수 288호 중 농가가 280호, 비농가가 8호로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남녀 비율은 총인구 706명 중 남자 344명, 여자 362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의 집중도는 도덕리를 제외한 봉림리와 범화리에 편중되어 있으며 권역의 입구로서의 기능과 중심부 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도덕리의 경우 권역의 끝에 해당하고 주변 산으로 인해 지형이 좁아지는 형태를 나타내어 주거지가 위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부분이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주변이 산림지대이기 때문에 주거지의 위치가 산림과 인접해 있고 산림을 배경으로 분포되어 있다. 자세한 마을별 인구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시항골 권역은 시항회를 비롯하여 총 5개의 지역공동체를 조직하고 있다. 농산물 공동생산과 판매를 위한 활동으로 여러 작목반이 운영 중이며, 마을의 유지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직도 운영되고 있다. 각 조직은 시항골 권역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달리 하고 있으며, 행정리별 이장 및 남,여 지도자와 권역사업추진위원장이 마을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표 2.> 시항회의 경우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을간 단합을 위한 대표적인 주민 공동체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시항회라는 공동체활동은 시항천과 시항산을 주변으로 3개의 법정리가 둘러 쌓여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교류 활동이 많은 편이었으며, 지리적인 영향으로 농업공동체 활동 등 기타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영동 장수풍뎅이 연구회는 곤충사육이 학습효과를 준다는 사회적 이슈와 함께

확장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한 홍보로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장수풍뎅이를 이용해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고자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한 자원이지만 그 활용도는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항골 외부적인 상위 계획을 파악하고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표 1. 마을별 인구 현황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가구수	인구(명)
봉림리	봉암리	봉암(날근더, 배마루), 미촌 (안상기미, 안상금)	121호	299명
	평촌리	평촌 (벌땀벌달), 수동(수골)		
범화리	하시리	하시(아래살목)	122호	297명
	상시리	상시(웃살목)		
도덕리	도덕리	도덕, 마섬이	45호	110명
3개 법정리	5개 행정리	8개 자연마을	288호	706명

표 2. 지역공동체 자원 현황

공동체 조직명	구성원 수	주요 활동 내역	비고
영동장수풍뎅이 연구회	16	장수풍뎅이 사육 및 곤충 연구 활동	
시 항 회	200	척사대회,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마을총회개최
부 녀 회	60	각종 애경사 봉사활동 및 환경개선활동, 경로잔치, 체육대회지원, 지역축제 지원	
생활 개선회	50	식생활개선, 일손 돕기, 봉사활동	행사 지원
작목반 (포도/표고/사과)	80 / 60 / 20	환경농업, 직거래추진, 농자재공동구매, 포도축제, 꽃감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	

(2)자연환경자원

표 3. 농업환경

분류	재배종	비고
과수	사과, 감, 배, 포도, 복숭아, 블루베리, 밤 등	
임산물	산나물, 송이버섯, 표고버섯, 영지버섯	
기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연구를 중심으로 생산

시항골의 농경지 면적은 봉림리 98.1ha, 범화리 98.5ha, 도덕리 43.3ha로 총 239.9ha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 농경지 면적에 비해 낮은 편으로 산지가 대부분인 지형적인 영향과 포도, 꽃감 등 지역 특화작물의 영향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항골 재배작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과수가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 작물로는 포도, 복숭아, 배, 블루베리, 감 등이 있는데 지역 특화작물로 알려진 포도와 꽃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마을별로 살펴보면 봉림리는 포도와 사과 위주의 재배를 하고 있고, 범화리는 포도, 복숭아, 사과, 밤 등을 재배하며, 도덕리는 표고버섯과 꽃감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권역 안에서 벼농사의 비중이 매우 낮고, 주민소득의 대부분이 과수재배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준다.<표 3.>

권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작목반별로 도매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매해 열리는 영동군 지역축제에 포도와 꽃감 등을 출품하고 있다. 지속적인 판매와 홍보를 위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산물들을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 시항골권역만의 지역특산물에 대한 인지도는 갖지 못하고 있다.

표 4. 지역문화행사

향토문화축제	시행월	장소	축제주요내용	주최
난계국악축제	7월	난계국악당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국내 유일의 국악축제로 한국 전통음악의 체계를 정립한 난계 박연의 고향 영동에서 1967년부터 개최 올해 41회 맞이함.	난계국악회
영동포도축제	8월	용두공원, 영동대학교	포도 따기 체험, 와인 만들기, 포도 밭기 등 각종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가 있음.	영동군포도회
꽃감축제	12월	청소년수련관	영동군은 전국 최대의 과일 주산지로서 맛 좋고 품질 좋은 과일을 공급함.	영동군과일축제추진위원회

영동군은 ‘축제와 문화가 함께하는 관광도시 영동’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로 문화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민주지산을 중심으로 양산팔경, 한천팔경 등의 자연이 주는 관광요소와 잘 보존된 다양한 문화재들은 문화관광지로서의 영동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영동의 대표 과수인 포도를 이용한 축제와 꽃감축제는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난계국악축제 또한 전통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축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표 4.>

이러한 영동군 내에서 소개하는 5개의 체험마을 중 하나가 시항골권역 이라는 점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 주지만, 인근의 체험마을과 관광지 등 경쟁요소와의 연계방안 모색,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항골 자체의 특색이 담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 5. 자원현황 분석 (현장조사 자료)

구분	자원명	위치	자원현황
자연자원	산지	시항골 일대	시항산
	계곡	범화리	불당골
	저수지	범화리	상시저수지
	하천	봉림리, 범화리	시항천(지방2급)
	철새도래지	봉림리	백로, 외가리 등 매년 약600마리 서식
	습터	봉림리	약250년 된 버드나무
생활환경자원	공동체 자원	시항골 일원	봉림, 범화, 도덕 마을회관(총8곳)
농업자원	농지 자원	시항골	농경지 약239.3ha
	산지 자원	시항골	산림면적 약1,480ha
	지역특화농업	시항골	포도, 꽃감, 배, 복숭아, 버섯, 장수풍뎅이
	창고	봉림리	마을 영농법인 창고
역사 전통자원	전통주거	봉림리	성위제 고가옥(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실	봉림리	창녕성씨 제실

이를 위해 농촌마을 자원 항목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5)에 따라 시항골의 자원을 <표 5.>와 같이 구분하였다. 대분류로 나뉘는 자연자원, 생활환경자원, 농업자원, 역사 전통자원에 대한 구분은 시항골의 자원현황을 쉽게 파악해 줄 뿐만 아니라 계획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

다. 조사 항목 작성에 있어서 현장조사와 주민 면담이 함께 이루어졌고 지역 주민들이 자원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요소를 찾아 내기위해 총 3회에 걸친 자원조사와 다양한 연령의 주민 면담을 실시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실시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된 자원 항목을 비교 검증 하였다.

비교결과 두 개의 자료에서 조사된 자원 현황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현장조사에서 범화리에 위치한 물당골과 권역 일대에 위치하는 시항산 등에 대한 자원이 추가 조사 되었으며, 기존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결과에 비해 부가설명 등을 포함하여 좀 더 세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표 6. 주변관광자원

관광지	거리(km)	소요시간(분)
무주리조트	35	50
무주 반디랜드	16	23
무주 애플스토리	32	45
무주 태권도 공원	20	25
영동와인코리아	18	25
늘머니 과일랜드	13	18
송호국민관광지	9	16
난계국악박물관	20	28
물한계곡	47	65

시항골 자체의 자원 분석 뿐만 아니라 연계 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분석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인근 지역의 주요관광자원으로는 영동군의 와인코리아, 난계국악박물관, 송호국민관광지, 물한계곡 등이 있으며, 늘머니 과일랜드가 2014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무주군에 위치한 관광자원으로는 무주리조트, 반디랜드 등이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애플스토리테마공원, 태권도 공원이 있다. 이는 시항골에 위협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나 주변 자원을 활용해 공생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규모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주변요소는 위협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시항골의 주요 자원중 하나인 과일을 이용한 테마공원이 각각 2곳에 위치하며, 무주 반디랜드와 영동 와인코리아는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한 부분이 겹치게 되어 경쟁의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농촌마을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농촌생활의 모습과 풍경, 소박한 인심을 활용해 주변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표 6.>

### 3.2. 개발 기본 구상

#### (1) SWOT분석

시항 골 권역의 개발방향 도출에 앞서 SWOT 분석법을 통하여 시항 골 권역의 외부와 내부의 각 요인들을 정

리하고 개발의 기본 방향의 전략을 수립 하였다. 포함되는 내용은 1차적으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여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리 하였다.<표 7.>

표 7. SWOT분석

분류	내용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li> <li>· 친환경 농산물선호</li> <li>· 체험학습의 인지도증가</li> <li>· 과수종합연구센터 지역에 포함</li> <li>· 농촌발전 전반에 걸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li> <li>·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도시민의 여가시간증가</li> </ul>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유입의 한계</li> <li>· 농촌 인구의 고령화</li> <li>· 한미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li> <li>· 중간 마진 유통관계 등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li> <li>· 전국의 농촌체험마을과 경쟁</li> </ul>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과수 재배</li> <li>· 3개의 도가 경계가 되는 위치</li> <li>· 주변의 다양한 연계자원</li> <li>· 주민들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확보</li> <li>· 장수풍뎡이라는 차별화된 자원</li> <li>· 영동포도에 대한 인지도를 활용한 기회제공</li> </ul>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관리소홀</li> <li>· 마을의 젊은 인력 부족</li> <li>· 마을 특유의 먹거리 부족</li> <li>· 마을 관광자원 부족</li> <li>· 마을 개발방향의 주체가 불명확</li> <li>· 마을 내 주차시설 및 복지시설 부족</li> </ul>

시항골권역 역시 대체적으로 개발이 미흡한 농촌이 지니고 있는 불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젊은 인력과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배치된 시설물 또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과 농산물 시장개방과 중간 유통 마진관계 등을 이유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농촌들이 지닌 공통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촌 개발을 통해 차차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차원에서의 주요 약점은 마을 개발 방향의 주체가 불명확 하다는 것이다. 마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못하는 부분과 특유의 먹거리가 없다는 것 역시 시항골권역의 개발에 있어 난점이 되고 있다.

반면에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경계가 되는 위치적 강점과 주변 지역의 다양한 연계자원, 영동포도에 대한 높은 인지도 등은 관광객 유치에 주요한 사항이다. 또한, 훼손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 환경과 다양한 작물재배,

그리고 장수풍뎡이라는 차별화 된 자원을 지니고 있어 풍부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강점이 있다.

## (2) 도시민 선호도 분석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기간: 2004년 7월~2009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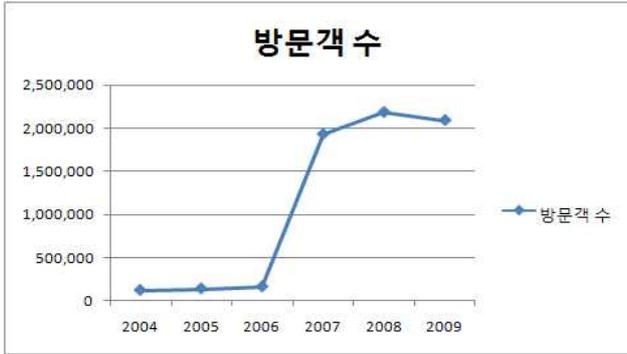


그림 3. 영동군 년 도별 방문객 변화

2004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영동군 주요 관광지 년도별 관광객수를 살펴보면 2004년 300만명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볼 수 있다.<그림 3.> 이는 2008년도 3월과 6월에 열리는 한국관광총회와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등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또한 영동군이 여름철 휴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여름철 피서객 증가가 주된 이유로 밝혀졌다. 물한계곡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Clean 물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체적인 정화작업과 관광객 유치에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관광객 수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농촌관광 선호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자연 환경을 그대로 느끼고, 즐기는 목적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8.> 4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목적은 농촌이 주는 풍요로움을 즐기는 전원 감상이다.

표 8. 도시민 선호도 조사

구분	농촌관광 참여 이유 및 목적	백분율
국정홍보처 (2004)	시골길, 강변산책 등 전원감상	22.2%
	동행인과의 친목도모	21.2%
	야영, 하이킹 등 자연탐방	14.2%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05)	교육추구 (지식습득 및 탐구)	12.3%
	활동추구 (모험심 충족, 재미와오락)	10.1%
	휴식추구 (정신적 육체적 휴식, 삶의 재충전)	9.6%
윤상환 (2007)	전원감상 (시골길, 강변산책 등)	51.2%
	자연탐방 (야영, 하이킹)	15.0%
	생활체험 (감자, 고구마 구워먹기 등)	12.1%

각각의 연구결과는 농촌이 주는 생산적 기능보다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으며 마을 개발방향 설정에 있어 도시민의 선호도를 따르는 자연 친화적인 접근 방식과 휴식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체험활동과 야영, 하이킹 등의 활동에 대한 수요도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 (3) 발전방향 설정

제시된 SWOT분석의 내용을 가지고 발전방향을 설정한다. 시항골의 경우 위협이 되는 요소는 포괄적인 부분이며 약점은 계획이후 변경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강점과 외부적인 기회의 요인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SO전략을 세웠다. 장수풍뎡이는 흔하지 않은 자원일 뿐만 아니라 생산규모면에서도 전국 1~2위를 다투는 상황이며 농촌소득 과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적합한 자원이다. 또한 영동군의 특화된 과수인 포도와 곳감뿐만 아니라 배, 복숭아, 버섯 등 다양한 종류의 과수가 생산되는 것은 먹거리 제공의 요소와 권역 소득사업 창출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영동군과 무주군의 다양한 연계자원은 지리적 요인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원활용 계획은 최근 대두되는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친환경 농산물 수요의 증대, 농촌에 대한 인식변화로 농촌을 체험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급증 하는데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충북상위계획에 있어 영동군이 보은군, 옥천군과 함께 바이오농업특화벨트 지역에 포함되고 농촌발전 전반에 걸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세워진 전략과 자원현황을 토대로 시항골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자연친화적 마을 구축을 통한 녹색 자연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조성'이라는 개발목표를 세웠다. 개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개발 개념으로 자연친화적 마을, 쉴 수 있는 마을, 오감만족 마을로 설정하였다. 시항골권역을 이루는 마을들은 위치적으로는 각각 나뉘어 있으나 마을별 차별화되는 특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개발개념을 적용하기보다는 각각의 마을이 상호 보완 될 수 있게 마을별 자원특성에 맞는 개발 개념을 고루 적용하였다.<표 9.>

자연 친화적 마을이라는 주제는 시항골권역을 찾는 도시민에게 농촌다움을 느끼게 해주며, 청정한 시항골의 자연을 느끼게 할 요소들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쉴 수 있는 마을은 도시민의 유치로 인하여 늘어날 숙박시설의 수요를 충족하고, 시항골권역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줄 쾌적한 공간들을 확보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오감만족 마을은 체험마을의 성격을 나타내며 보고, 듣고, 향기 맡고, 피부로 느끼며 맛 볼 수 있는 체험을 위한 주제라 할 수 있다.

표 9. 마을별 개발개념

개발개념	발전방향	개발개념별 목표
자연 친화적 마을	관광객에게 농촌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농업 시행</li> <li>*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만들기</li> <li>*시향천을 생태적 공간으로의 재개발</li> <li>*마을전경과 별자리관측 등을 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li> <li>*마을앞 가로수식재(꽃길조성)</li> <li>*철새도래지관측소와 주변 정비</li> <li>*마을 안길 및 돌담길 정비</li> </ul>
실 수 있는 마을	숙박시설 제공을 통한 주변 연계자원 관광객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박시설의 정비 및 확충</li> <li>*정자 확대 설치</li> <li>*마을 내 주차 공간 확보</li> <li>*산책로 정비</li> <li>*상시저수지를 활용한 낚시공간 조성</li> </ul>
오감만족 마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마을 볼거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일수확, 산나물채취, 버섯따기 등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li> <li>*곤충 체험장, 전시관 신축</li> <li>*장수풍뎅이 상징물 만들기</li> <li>*성위재고가옥을 활용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li> <li>*일라이트물 개발</li> <li>*참나무를 활용한 휴식공간 설치</li> <li>*참나무숲에서의 장수풍뎅이 관찰 프로그램 개발</li> </ul>

(4) 세부 실시계획

다음은 <표 9.>를 바탕으로 마을별 세부 계획을 실시하였다. <표 10.> 마을별 특색을 분명히 하되 독립되지 않으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10. 마을별 세부사업내용

마을명	발전목표	사업내용
봉림리	과일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농업 특성화사업</li> <li>• 마을 기반 시설 조성사업</li> <li>• 녹색체험관광시설지원 사업</li> <li>• 전통자원 보존사업</li> </ul>
범화리	숙박시설 및 권역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li> <li>• 숙박시설 조성 사업</li> <li>• 일라이트물 특성화 사업</li> </ul>
도덕리	장수풍뎅이 및 버섯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체험관광시설지원 사업</li> <li>• 친환경농업특성화 사업</li> <li>• 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li> </ul>

기본적으로 마을전체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계획 내용에 실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창출이 필요하므로 권역 전반에 걸쳐 정자, 벤치 등에 대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

마을 단위로 보면 봉림리의 경우 성위재고가옥이라는 전

통자원과 자연자원인 철새도래지가 위치하여 권역의 전통적인 측면과 친환경적인 측면을 부각 시킬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권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에 대한 홍보와 함께 판매망을 구축하고 체험프로그램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이미지를 확립해 나간다.

범화리는 권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센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시민에게 제공되는 숙박시설 확충과 함께 마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이미지 개선 효과를 거두며, 봉림리와 도덕리의 자원을 활용해 적절한 체험프로그램과 마을의 문화행사를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 도덕리는 곤충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 존재 했지만 홍보부족과 참여의식 부족, 관리소홀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를 정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늘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농외소득 사업에 대한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4.결과 및 고찰

시향골권역의 비전을 통해 3가지 개발 개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발 계획에 있어 대상지의 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생산되는 과일을 직접 수확하는 체험과 먹거리 제공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간다. 또한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 기반 시설 확충도 필요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시향골권역 종합개발계획도

이러한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친환경 농업

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농산물 판매와 체험을 통해 도농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며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실현될 경우 지역의 약점으로 꼽히는 인구감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정체성을 계승해 나갈 수 있다.<그림 5.>

농촌마을 계획에 있어 어메니티자원 조사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일반화 하거나 객관화 하는 방법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이 주관적인 방법에 의해 계획에 적용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마을 개발에 있어서는 대상지의 현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전문가들의 현황분석과 객관적인 진단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을을 관리·유지해 나가는 방법도 농촌개발 발전을 이루는 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시향골권역 종합개발의 기대효과

### 5. 결론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농촌마을관련 사업은 상향식 접근에 기초를 두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어메니티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주체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민 선호도 조사를 참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개발계획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발계획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향골권역의 어메니티자원분석 결과를 가지고 자연친화적 마을 구축을 통한 녹색자연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을 위해 “과일향기 찾아온 장수풍뎅이가 머무는 시향골”이라는 컨셉을 제시 하였다. 그 하위 개념은 자연친화적 마을, 쉴 수 있는 마을, 오감만족 마을로 권역에 해당하는 각 마을별 특성을 살려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

둘째, 시향골권역의 청정한 자연환경은 지금까지 권역 농가의 주 소득원인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자연적인 여건이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활용되도록 친환경 농업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셋째, 관광객의 편의뿐만 아니라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확충을 통해 개발계획의 근본 목표인 농촌주민의 정주권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마을 주차공간조성, 다목적회관설치, 쉼터 개발 등 마을 기반시설 정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본질적인 목표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어메니티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수립에도 불과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개발과 관련한 주민간 갈등과 이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계획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가 바탕이 된 체계화된 계획수립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진경, 김혜민, 조순재, 농촌자원활용 마을계획 개발과정에 관한 연구-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대상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Vol.10, No.4
2. 강방훈, 조순재, 이상문, 지역특성을 고려한 어메니티 계획권역 설정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7
3. 리신호,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사례별 농촌마을 모형설계, 농림부, 2006
4. 반용운, 정재호, 생태마을 조성을 통한 농촌 어메니티 향상 방안, 농촌계획학회, Vol. 14, No.4
5. 정남수,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평가를 위한 조사표와 항목개발, 한국농촌계획학회 Vol. 11, No. 4
6. 조상필,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4
7. <http://www.mifaff.go.kr/>
8. <http://www.yd21.go.kr/>
9. <http://sihang.co.kr>
10. <http://rural.rda.go.kr/>